

# 일본산 철강제품 가격 ‘흔들’… 국내업계, 반사이익 기대감

日, 2007년 이후 첫 금리 인상  
엔화 강세시 저가공세 종료 전망  
“수입량 큰 품목에 한해 효과 볼 것”

일본이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국내 철강업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일본 제품의 수입량이 많은 품목선에서만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에 따르면 지난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그간 유지했던 마이너스 금리 종료를 결정하고 단기 금리를 0~0.1%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07년 2월 이후 처음 인상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금리 인상은 엔화 강세를 불러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에 따라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본산 제품이 감소할 수 있어 국내 철강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



포스코 포항제철소 1열연공장 내부 전경

/포스코

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간 국내 철강업계는 엔저를 앞세워 저렴한 가격 공세를 해오던 일본 철강제품으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열연강판은 총 422만 2000톤으로 전년 대비 24% 늘어났다. 이중 일본산 열연강판은 전체 수입 물량 중 42%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221만 7000톤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입산 열연강판의 가격은 톤당 80만원대 초반으로 국내산 열연강판 가격 대비 5~10%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연강판은 후공정을 통해 자동차용 강판, 강관재, 건축자재 등으로 만들어져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는 기초 제품이다.

수입 제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에 유통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대형 조강 업체들이 한국 정부에 반덤

핑 제소를 검토해 온 바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본 철강제품은 엔저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라며 “이번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일본산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다소 낮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업계가 얻을 이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열연강판, 후판 등 일본제품의 수입량이 상대적으로 큰 일부 제품의 한에서만 효과를 볼 것이며, 전체적인 철강제품 품목에서는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일본 금리가 그동안 글로벌 경기와 비교했을 때 장기간에 걸쳐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 왔기에 금리 상승은 예견했던 부분”이라며 “차후 일본 정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에코프로

인니 ‘그린에코니켈’ 투자  
1100만달러 투자… 지분 9% 취득

에코프로가 이차전지 핵심 광물인 니켈 확보를 위해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에코프로는 약 1100만 달러를 투자해 중국 GEM이 인도네시아에서 운영 중인 니켈 제련소 ‘그린 에코 니켈’ 지분 9%를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에 위치한 ‘그린 에코 니켈’은 연간 약 2만톤의 니켈을 생산하는 제련소다.

이번 계약으로 에코프로는 투자 지분에 상응하는 니켈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 에코프로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을 위해 ‘그린 에코 니켈’의 지분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 OCI홀딩스

OCIM-트리나솔라  
폴리실리콘 공급 계약

OCI홀딩스의 말레이시아 자회사인 OCIM Sdn. Bhd. (OCIM)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25일 OCI홀딩스에 따르면 OCIM은 글로벌 태양광 전문 기업 트리나솔라(Trina Solar)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장기공급계약을 지난 20일 체결했다. 트리나솔라는 고효율, 고품질을 자랑하는 210mm 태양광 모듈 출하량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기업이다.

이에 따라 OCIM은 오는 2030년까지 USD 약 7억불(한화 약 9300억원) 규모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베트남 타이응우엔시에 있는 트리나솔라 생산 기지로 공급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 두산퓨얼셀

셀스택, DNV 테스트 통과

두산퓨얼셀의 선박용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두산퓨얼셀은 개발 중인 선박용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에 핵심부품으로 쓰이는 셀스택이 환경테스트 기준을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SOFC란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다. 내연기관과 달리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는 게 특징이다.

두산퓨얼셀은 세계 3대 선급협회 중 하나인 노르웨이 선급협회(DNV)로부터 테스트를 받았다.

두산퓨얼셀 관계자는 “실제 운항 조건보다 가혹한 조건에서도 출력 감소가 없을 정도로 제품경쟁력이 뛰어났기에 이번 환경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었다”면서 “나머지 부품에 대한 인증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조속히 선박에 실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 K-기업,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확장

# 현대차그룹, 흥해일대서 전기·수소차 실증

RSG와 미래 모빌리티 업무협약  
AAM, 자율주행 등 솔루션 도입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2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가 프로젝트 중 하나이자 프로그램 추진 주체인 RSG(Red Sea Global)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우디는 원유 중심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사우디 비전 2030’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RSG는 네옴(Neom, 미래형 신도시), 키디아



존 파카노 RSG CEO(왼쪽), 이동건 현대차그룹 GSO 미래성장전략사업부 상무가 2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Qiddiya,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로쉬(Roshn, 주택 개발), 디리야(Diriyah, 유적지 개발) 등 사우디가 공

식 선언한 사우디 비전 2030의 기가 프로젝트 5개 중 하나로 흥해 및 서부해안의 자연 친화적 럭셔리 리조트 및 웰빙 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RSG는 이번 MOU를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 실증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협업 기회 발굴 및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RSG가 개발하고 있는 흥해 지역 옴마하트 제도 리조트 단지와 서부해안의 친환경 웰빙 관광단지인 아말라에서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를 실증하고, 이를 통해 사우디 내 친환경 모빌리티의 보급 확대와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중장기적으로 RSG 개발 단지 전체

에 AAM,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도입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사우디 국부펀드와 킹 압둘라 경제도시(KAEC)에 전기차를 포함해 연간 5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CKD 합작공장을 건설하는 투자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동시에 사우디 버스 운영 운송 업체, 기업 등과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협업을 맺고 사우디의 친환경 에너지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한 바 있다.

이동건 현대차그룹 GSO 미래성장 전략사업부 상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의 강점을 살린 다양한 협업 기회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협력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STX-프라고티, ‘자동차 제조용 패키지’ 공급 MOU

〈방글라데시 국영기업〉

방글라데시 모빌리티 사업 확장 기대

글로벌 종합상사 STX가 방글라데시에 차량 제조용 패키지를 공급한다. 최근 경제 성장과 함께 커지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자동차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모빌리티 사업을 확장한 것이다.

STX는 방글라데시 국영기업인 자동차 제조 업체 ‘프라고티 인터스트리(이하 프라고티)’와 ‘자동차 CKD 패키지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CKD(Complete Knock-Down) 방식은 완성차가

아닌 부품 상태로 수출한 뒤 현지에서 조립해 판매하는 생산 방식이다.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어 현지에서 선호된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준 STX 대표이사를 비롯해 방글라데시의 산업부 장관인 누를 마지드 마흐무드 후마윤와 차관보급이자 프라고티의 모기업 BSEC 회장인 무함마드 모니루자만 등 현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프라고티는 국영철강공단인 ‘방글라데시 스틸 앤 엔지니어링 기업(BSEC)’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조립 및 부품 제조 업체다. 제조하는 차량은

방글라데시 관용 차량 용도로 최우선 납품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STX는 승용차 CKD 패키지를 장기적으로 공급하고, 연내 특장차 등으로 차종을 확대해 방글라데시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STX관계자는 “인구가 1억 7000만 명에 이르는 방글라데시는 최근 중산층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소형 세단부터 고급 SUV까지 자동차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모빌리티 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상준 STX 대표는 “방글라데시



(왼쪽부터) 박상준 STX 대표이사 와 아부르 칼람 아자드(Abul Kalam Azad) 프라고티 대표이사가 지난 18일 서울 중구 STX 본사에서 ‘자동차 CKD 패키지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TX

산업부 및 프라고티와 공급 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협력이 방글라데시에서 자동차 산업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